

(6)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소 잡화주거빌딩 화재의 참사는 1975 년경에 발생 한 후, 자취를 감추었으나, 하나 밖에 없는 계단에 빌딩 맥주 케이스가 산처럼 쌓여 있거나, 방화문 앞에 간판을 걸어 폐쇄 장애를 일으키거나 하는 사례는 누구나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1~2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화재도 많아, 중소 잡화주거빌딩의 방화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사회에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 대상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소방 행정의 중심적인 과제가 되어 오지 않았던 것은, “규모가 큰 대상물일수록 화재의 잠재 위험성이 높다(작으면 잠재 위험성은 낮다)”라는 것이 방재 법령의 구조에서 소방 기관의 출입 검사 계획에 이르기까지 암묵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전제는 과거의 큰 피해를 낸 화재 경험의 축적에서 온 것이지만, 연면적 500 m² 정도의 소규모 빌딩에서 전후 5 번째가 되는 다수의 사망자를 기록했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다.

사망자가 많았던 큰 원인이, 계단이 하나 밖에 없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성령(政省令)의 레벨에서는 이런 빌딩의 위험성을 대상으로 자동 화재경보설비의 설치 기준 등 하드 소프트 양면의 규제 정비를 했다.

2. 방화 법령 개정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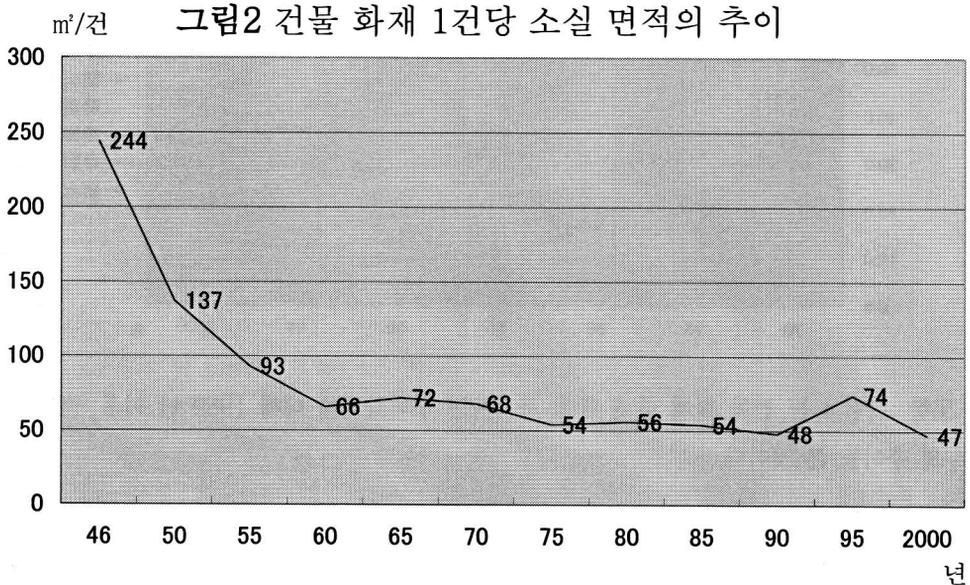
방화 법령은 화재로부터 재산 및 인명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방화 법령이 강화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는 통계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대해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

(1) 건물 화재 1 건당 소실 면적의 변화추세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력의 정비, 도시 구조의 불연화나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 내화건축물의 방화 구획의 설치, 자동 화재 알람 설비나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등,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능한 한 소실 면적”을 줄이기 위한 시책이 강구되어 온 것은 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2 는 건물 화재 1 건당 소실 면적의 추이를 전후 50 년간 그려 본 것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1946 년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평균 250 m² 근처, 주택으로 하면 여러 집이 불타 버리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건물 화재 1 건당 소실 면적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1955년에는 93㎡로 줄었고, 1960년에는 66㎡로 줄어 14년간 4분의 1로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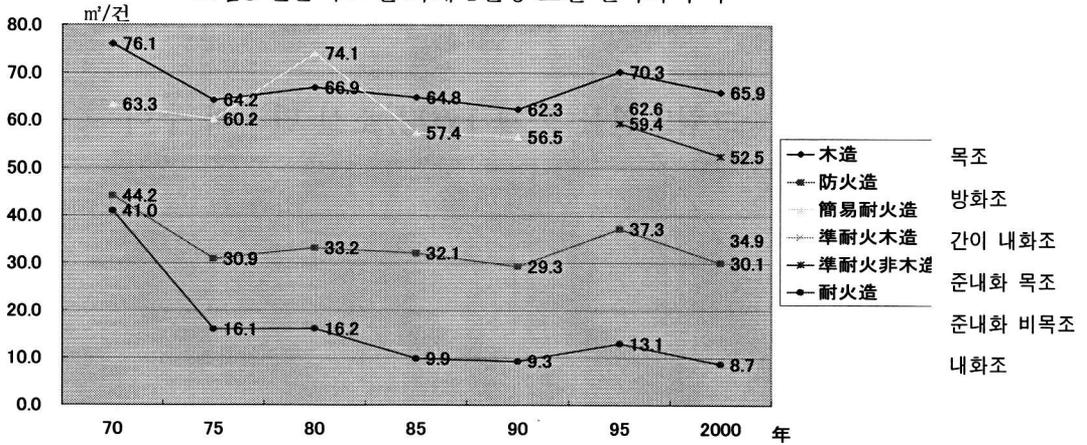
전후 직후에는 일본의 마을들은 목조 주택이 중심이며, 사회가 혼란하여 소방력도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연소 확대해 갔다고 생각된다. 그 후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소방 체계가 정비되자, 화재가 발생해도 평균 1 주택 정도의 피해로 줄어들게 되었다.

1950 년경부터는 시가지 대형 화재 대책을 중점에 둔 도시 계획법과 건축 기준법에 근거해 마을이 건설되게 되며, 내화건축물의 비율도 점차 높아진다. 그 효과가 통계상 언제부터 나타났는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소방력의 정비와 함께 1960 년경 이후 “시가지 대형 화재”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자, 건물 화재 1 건당 소실 면적은 1 주택 부에도 못 미치게 되고, 더욱 감소하게 되어 최근에는 50㎡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그림 3은 구조 별로 본 건물 화재 1 건당 소실 면적의 변화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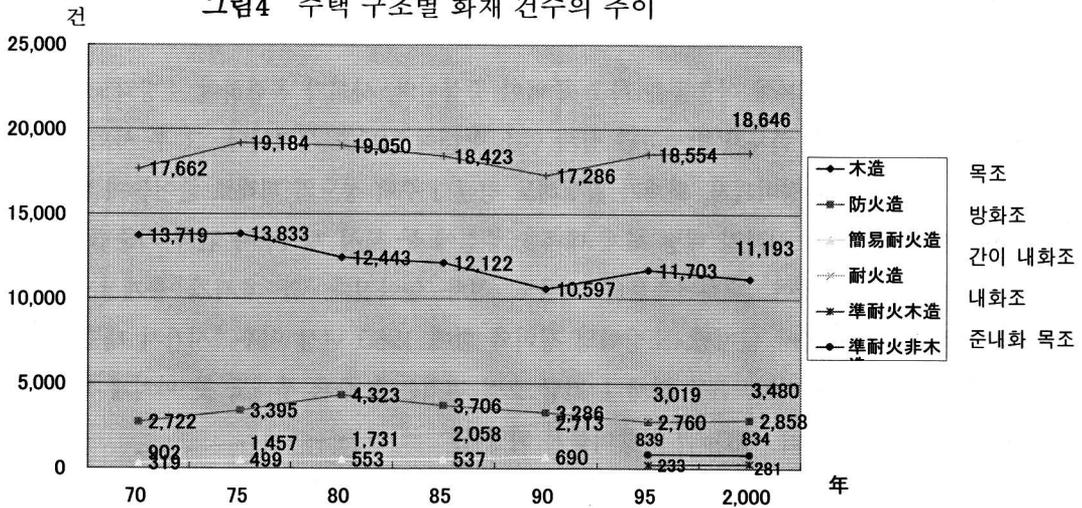
- 내화조의 화재 1 건당 소실 면적은 다른 구조에 비해 훨씬 적으며, 또한 개선이 현저하다는 것
- 목조와 방화조에서는 2 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
- 각 구조 모두 1965 년~1975 년경에 비해 1975 년 이후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
- 내화조나 간이 내화조(준내화조)에서는 1975 년 이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 목조나 방화 목조에서는 1975 년 이후 한계점에 도달, 1990 년경 이후는 역전의 경향도 보인다는 것등을 읽어낼 수 있다.

그림3 건물 구조별 화재 1건당 소실 면적의 추이



또한, 그림 4 는 건물 화재 중 6 할을 차지하는 주택화재에 대해 1969 년 이후 구조별 출화 건수의 추이를 본 것이다.

그림4 주택 구조별 화재 건수의 추이



이를 보면,

- 목조 주택화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
- 방화구조 주택화재는 당초 증가하고 있었지만 1980 년을 피크로 감소 경향이 되어, 최근에는 1970 년경과 동일한 정도의 레벨이 되어 있다는 것
- 내화조 주택화재가 4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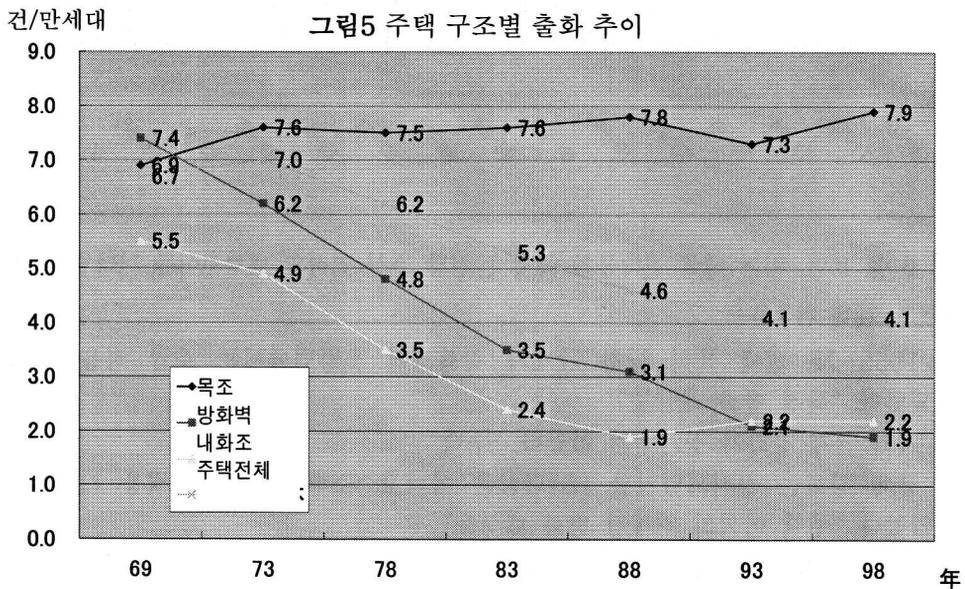
등을 알 수 있다.

그림 4 의 구조별 주택 출화 건수에 나타난 경향은, 전국의 구조별 주택 스톡의 추이와 구조별 주택 출화율의 추이를 합성한 결과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림 3 과 그림 4 를 비교해 보면, 그림 2 에서 화재 1 건당 소실 면적이 1970 년 이후(한신 및 아와지 대지진이 있었던 1995 년은 제외) 감소하고 있는 것은, 건물 화재의 60%를 차지하는 주택화재에 대해, 구조별 주택소실의 수를 반영하여, 목조 주택화재의 비율이 내려가고, 내화구조 주택화재 등의 비율이 올라간 점이 크지만, 내화구조 건축물의 평균 소실 면적이 현저하게 개선된 점도 적게나마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방력 정비의 효과는, 1965 년경까지 실시된 소실 면적에 대한 뚜렷한 개선 노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덧붙여, 구조별 주택 출화율을 보면(그림 5), 방화구조의 개선 경향이 뚜렷하며, 내화구조에 대해서도 개선이 뚜렷하지만, 목조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다.



(2) 내화건축물 화재 1 건 당의 소실 면적의 변화추세

건축 방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방화 법령에 추가된 것은 1955 년 이후이지만, 중고층 건축물 특유의 화재 성질과 상태가 저작 되어 건축 방화 이론으로서 정리되고 법령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1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65~1975 년의 잇따른 규제 강화 시기이다. 그 효과는 그림 3 에도 다소 볼 수 있지만, 중고층 건축물로부터 목조 단독주택까지 함께 한 그림 3 에서 그 경향을 보아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m²/건

그림6 내화 건축물 용도별 화재 100건당 소실면적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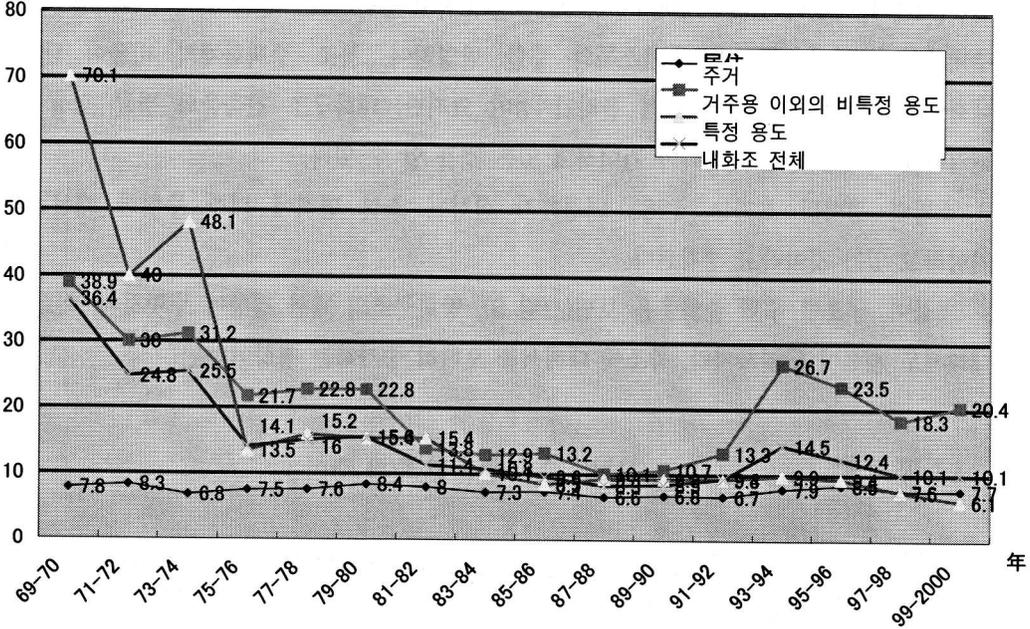


그림 6 을 보면, 이는 내화 건축물의 화재 1 건당 소실 면적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내화 건축물을,

- (A) 1965~75 년에 특히 방화 규제가 강화되어 소방법에서는 소급 적용의 대상이 되었다. “특정 방화 대상물”
 - (B) 거의 규제 강화가 실시되지 않았다. “주택”
 - (C) 규제 강화는 실시되었지만 (A)만큼은 아니고, 소방법의 소급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다. “주택 이외의 비특정 방화 대상물”
- 로 나누어, 그 소실 면적의 변화를 보았다.

이 그림을 보면,

- ① 1969~1970 년 “특정 방화 대상물” (A)의 화재 1 건당 소실 면적은 주택을 제외한 “비특정 방화 대상물” (C)의 1. 8 배였지만, 자동 화재 알람 설비가 소급(여관 및 호텔 등에 대해서는 1969 년 3 월, 특정 방화 대상물 전체에 대해서는 1972 년 12 월)된 기간(1969~1975 년)에 70. 1 m²→13. 5 m²로 약 5 분의 1 로 격감하여, (C)와 역전되어 있다는 것.
- ② 규제 강화가 거의 실시되지 않은 “주택” (B)의 화재 1 건당 소실 면적은 최근 30 년간 거의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
- ③ 소급되지 않은 “주택 이외의 비특정 방화 대상물” (C)의 화재 1 건당 소실 면적도 1969~1970 년부터 1981~1982 년까지 12 년간, 38. 9 m²→13. 8 m²로 3 분의 1 미만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